4 주(2010.10.4):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

I. 시작하면서

* 사르트르: 문학(글쓰기)을 종교로 여김; 자기 구원의 수단; 작가=성직자; 하늘과 땅의 매개자;
* 작가 = 이웃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면모;
* 이웃의 구원자로서의 사르트르 = 참여(앙가주망 engagement)문학론 주창;
* 『문학이란 무엇인가 Qu'est-ce que la littérature?』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학론;
* 의의 : 1) 문학이 갖는 사회적 기능; 즉 문학의 위기 시대에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과 무관하지 않음; (cf. 들뢰즈의 소수문학론); 2) '독자' 역할의 강조(cf. 에코, 바르트, 수용미학 등);
* 오늘의 주제 : 사르트르의 참여문학론
* 특히 '타자에 의한 예술(l'art par autrui)'; '타자를 위한 예술(l'art pour autrui)'; 글쓰기 = '호소(appel);

II. 예비적 고찰

II.1. 참여문학론

* 참여문학론의 경전 - 『상황 II *Situations II*』 : 「『현대』지의 창간사 Présentation des *Temps modernes*」; 「문학의 국유화 La nationalisation de la littérature」;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인가 Qu'est-ce qu'écrire?」, 「왜 쓰는가 Pourquoi écrire?」, 「누구를 위해 쓰는가 Pour qui écrit-on?」, 「1947 년 작가의 상황 Situation de l'écrivain en 1947」;
* 『문학이란 무엇인가』 => 단행본으로 출간;
* 참여문학론 : 1) 시(詩)와 산문(散文)의 구별; 2) 산문을 근간으로 하는 소설을 중요시함; 3) 글쓰기(écrire) = 드러내기(dévoiler) = 폭로하기(démontrer)=변화시키기(changer);
* 글쓰기가 갖는 불온성(不穩性)= 부정성(négativité) = 이의(異意)제기(contestation); 한 사회의 지배세력에 유해(有害); 그 세력과 항상 적대 관계;

II.2. 왜 글쓰기는 타자를 향하는가?

* 문학을 통한 자기 구원의 가능성: 『구토』의 말미에서 확인; 그러나 독자의 존재에 주목;
* 독자의 존재를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만나게 됨;
* 글쓰기='행동의 한 특수한 계기'='드러냄을 통한 행동';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하는 행동";

> "우리는 뒤이어 문학의 목적이 무엇일 수 있을지 규정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말해 둘 수는 있다. 즉 작가란 세계와 특히 인간을 <u>다른 사람들에게</u> 드러내 보이기를 선택한 자인데, 그 목적은 이렇게 드러낸 대상 앞에서 그들이 전적(全的)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문』)

* 질문 : 왜 작가의 글쓰기는 '타자들'에게로 향해야 하는가?
* 타자에 의한 글쓰기 예술(=문학)의 측면

III. 타자에 의한 문학

III.1. 글쓰기의 동기(motif) : 본질적이고 싶은 욕망

* 지난 시간: 창작에서 그 결과물인 작품과 관련하여 이 작품의 출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곧 조물주와 같은 존재라고 느끼는 것; 잉여존재의 정당화;
* 바꿔 말해 작품을 매개로 '대자-즉자(pour-soi-en-soi)'의 결합, 즉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자기원인자인 신(神)의 존재방식에 이르는 것;

III.2. 이중의 환원(réduction)

* 실존의 세 범주(catégorie) : 함(Faire), 가짐(Avoir), 있음(Etre); * 그것의 환원 : 창조=> 소유; 함 => 가짐으로 환원
* 가짐 => 있음의 범주로 환원 (Cf. 천민자본주의);
* 창조된 대상 = 소유의 대상; 소유주'와 '소유 대상'은 같은 것; 인간 = "그가 소유하는 것";

> "만년필, 파이프, 의복, 책상, 집 등은 '나'이다. 내가 소유하는 것 전체는 나의 존재 전체를 반영한다. 나는 내가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존재와 무』 = 『존』);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 만큼 더 존재한다";

cf. 다른 사람의 소유 대상, 소유권의 침탈 = 소유자의 존재에 타격을 입히는 것;

> 예) 사람이 생전에 소장했던 물건들을 함께 매장하는 옛날의 풍습의 예;
> 사르트르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사람이 생전에 사용했던 일용품들을 빼고 매장하는 것은 "그 사람의 다리 하나를 빼고서 매장하는 것과도 같다; possédé(귀신 붙음);

* 소유 행위 속에서 '나'는 '소유하는 자-소유되는 대상'의 한 쌍을 이룸;
* 이 대상은 이중의 지위를 가짐 = 1) 보통 사물과 같은 존재; 2) 나의 분신(alter ego)주체성;

> "(.....) 나의 작품은 무한정 나의 '표지'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작품은 무한정 '나의' 사상이다. 모든 예술 작품은 하나의 사상이며, 하나의 '이념'이다."(『존』)

* 따라서 자가기 쓴 작품을 소유하는 경우 : 이론적으로는 '대자-즉자'의 결합이 이루어짐;

III.3. 글쓰기를 통한 "대자-즉자(pour-soi-en-soi) 결합"의 실현

* 인간의 목표 = '대자-즉자'의 결합

* 두 가지 가능성 : 1) 대자-즉자(le pour-soi-en-soi)의 결합; 2) 대자-대자(le pour-soi-pour-soi)의 결합;
* 창조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 = '나(moi)'이자 동시에 '비아(非我;non-moi)'가 되는 것;
    * 핵심 :
    - 내가 창조한 대상이 갖는 '즉자'의 모습은 보통 사물이 갖는 즉자의 면모와는 다르다는 것;
    - 그것 = 나'에 의해 창조된 것; '나'는 그것의 '존재 이유'; 그것의 이 세계에의 출현을 보증;

> "소유한다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해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대상 존재의 본래 목적이 되는 일이다. 소유가 온전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 소유하는 자는 소유되는 대상의 '존재 이유'이다."(『존』)

* '대자-즉자'의 결합의 실현 :

> "이리하여 나는 내가 나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서, 그리고 즉자로서 존재하는 한도에서 나의 근거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즉자-대자의 기도 그 자체이다. (.....) 소유하는 대자와 소유당하는 즉자의 이 한 쌍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유하기 위해 있는 존재, 그것의 소유가 자기 자신의 창작인 존재, 다시 말해 신(神)의 존재와 맞먹는 것이다."(『존』)

* 문제 : 작가는 과연 사르트르가 제시한 과정을 거쳐 그가 소망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까?

III.4. 불가능한 구원

* 인간은 '무용한 정열 또는 수난(passion inutile)';
* 창조, 소유를 통한 '대자-즉자'의 결합 실현의 불가능성의 한 예 : 도제-화가;

> "어느 풋내기 화공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다. "언제 제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자 스승은 대답했다. "네가 네 그림을 바라보고 스스로 놀라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니!'하고 말할 때다."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 그러나 우리 자신이 제작의 규칙이나 척도나 규준을 만들고, 우리의 창조적 충동이 우리의 가장 깊은 가슴속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경우에는 우리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자신일 따름이다. 화폭이나 종이 위에서 얻은 결과는 우리의 눈에는 결코 '객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결과를 빚어낸 수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수법은 끝끝내 주체적인 발견일 따름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며 우리의 영감이며 우리의 계략이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지각하려고' 애쓸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그 제작의 작업을 머릿속에서 반복할 따름이며, 작품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두 결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문』)

> “이처럼 작가는 도처에서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의지, 자신의 기획, 간단히 말해 자기 자신만을 만날 뿐이다. 그는 자신의 주체성만을 만질 수 있을 뿐이다. 그가 창조해낸 대상은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가 이 대상을 다시 읽는다고 해도 벌써 늦는다. 그가 쓴 문장은 그의 문에는 절대로 하나의 사물이 될 수 없다.”(문)

* 그러나 작품의 객체적인(objectif) 면(=즉자; en-soi)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작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건; 작가는 자기가 쓴 작품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만을 발견할 뿐; le pour-soi -pour-soi 의 결합만을 실현할 뿐이다; 따라서 실패;
* 작가는 어떻게 처신할까? : 절망하고 낙담해서 펜을 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인가?

III.5. 글쓰기와 읽기의 결합

* 문학작품 = ‘팽이(toupie)’ ; 즉 얻어맞아야 돌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
* 문학작품이라는 팽이를 지탱하는 힘 = 독자의 읽기 행위;
* 문학 작품 = 독자의 읽기 행위가 “종이 위에 박힌 검은 흔적(traces noires sur le papier)”(『문』);
*읽기 행위 = 읽기 행위의 주체의 주체성을 흘려 넣는 작업 = 작품에 객체적인 면을 부여하는 행위 :

> “타자가 나의 책 속에 그 자신의 주체성을 흘려 넣을 때, 다시 말해 나의 책을 재창조할 때 나의 책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의 객관성 속에 존재하게 된다. 타자의 평가라는 시각 속에서 내가 나의 책을 다시 읽을 때 나는 그 책 속에서 어떤 심오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심오함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책 속에 불어넣을 수 없었던 그러한 심오함이다”(『도덕을 위한 노우트』 = 『도』)

* 읽기 행위 = 시선(regard)을 동반하는 행위; 시선 = 객체화하는(objectiver) 힘;

> “그러나 또한 작품은 타자에 의해 인정되고 가치평가 되어야만 한다. 작품은 실제로 타자에 의해 그리고 타자를 위해 이루어진다. 타자의 협력은, 비록 그것이 그 작품의 완전한 외면성을 부여하는 것일 지라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런데 타자는 예측 불가능한 자유이다.”(『도』)

* “글쓰기 + 읽기” :

> “쓴다는 작업은 그 변증법적 상관자로 읽는다는 작업을 함축하는 것이며, 이 두 가지 연관된 행위는 서로 다른 두 행위자를 요청한다. 정신의 작품이라는 구체적이며 상상적인 사물을 출현시키는 것은 작가와 독자의

결합된 노력이다. 타자를 위한, 타자에 의한 예술만이 있을 뿐이다."(『문』)

* 작품 = "상호주체성의 발산(émanation de l'intersubjectivité)";
* 작가(= 작품 창조의 주체; 대자) + 독자의 읽기 행위에 의해 마련된 작품의 객체적 측면((=즉자적 면모) = 대자-즉자의 결합;
* 타자에 의한 문학 :

"문학이란 대상은 독자의 주체성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실체도 갖지 않는다."(『문』)

III.6. 타자를 위한 문학

*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을 읽고 그것에 객체적인 측면을 부여하게끔 해야 함; 그런데 이것은 독자에게는 수행해야 하는 하나의 의무에 해당됨;
* 과연 독자는 작가의 소원대로 행동해줄 것인가?
* 글쓰기 = 호소(appel) :

창조는 오직 읽기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는 자기가 시작한 것을 완결시키는 수고를 남에게 맡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오직 독자의 의식을 통해서만 자기가 제 작품에 대해 본질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학 작품은 호소이다.(『문』)

* 글쓰기의 정의 :

글을 쓴다는 것은 내가 언어라는 수단으로 기도한 드러냄을 객관적 존재로 만들어주도록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문』)

* 이처럼 작가는 호소를 통해 독자의 자유를 인정;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함 :

그 반면에 책은 나의 자유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한다. 사실, 우리는 강요나 매혹된 탄원을 통해서 남의 자유에 호소할 수는 없다. 그 자유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은 우선 자유를 인정하고 다음으로 자유를 신뢰하고 마지막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그것에 대한 신뢰의 이름으로 그 자유로부터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책은 도구처럼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독자의 자유에 대해서 자신을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문』)

"물론 우리에게는 책을 책상 위에 그냥 놓아둘 전적인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일단 책을 펴게 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문』)

* 독자의 협력을 위한 사르트르의 마지막 조치 : 독자의 개입을 받아들임;

그리하여 여기에 독자가 개입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풍습과 세계관, 사회관, 그 사회 내의 문학에 대한 개념 등이 개입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자 대중은 작가를 포위 공격한다. 그 위압적인 또는 음흉한 요구며, 그 거부, 그 도피 등이 그가 발판으로 삼아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기존의 여건'이 되는 것이다.(『문』)

* 독자 : '미적 희열(joie d'esthétique)'; 작가 : '안정감(sentiment de sécurité)'이 나타남;
* '미학과 도덕'의 결합 :

문학과 도덕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심미적 요구의 근저에는 윤리적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작품을 쓰는 사람은 쓴다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써 독자의 자유를 인식하기 때문이며, 또 읽는 사람은 책을 편다는 사실만으로써도 작가의 자유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신뢰하고 드는 행위이다. 그리고 작가와 마찬가지로 독자가 자유를 인식하는 것은 오직 자유가 표현되기를 요구하기 위해서이므로 작품이란 "세계가 인간의 자유를 요구한다는 한에 있어서 세계의 가상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내릴 수 있다. (문 88-89)

III.7. 작가의 사후

* 영생을 누린다고 보고 있음 : '대자-즉자'의 결합을 실현;
* 그러나 독자의 도움은 여전히 필수 :

(.....) 그러다가 1955 년 경이 되면 유충이 딱 쪼개져서 이절판의 나비 스물 다섯 마리가 태어나리라. 그들은 페이지를 날개삼아 날으며 국립도서관의 서가에 가서 앉으리라. 그 나비들은 다른 나다. 나 자신이란 말이다. 스물 다섯 권, 본문 만 팔천 페이지, 판화 삼백 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자인 나의 사진도 끼어 있다. 내 뼈는 가죽과 딱딱한 표지로 되어 있고, 양피지가 된 내 살에서는 아교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난다. 60 킬로의 종이에 걸쳐서 나는 흐뭇하게 어깨를 핀다. 나는 다시 태어나고 마침내 완전한 인간이 된다.

(.....) 사람들이 나를 들고 연다. 나를 책상 위에 펼쳐 놓고 손바닥으로 쓰다듬고 또 때로는 파닥거리게 한다. 나는 가만히 내버려둔다. (.....) 나의 의식은 조각조각 갈라진다. 그게 좋은 것이다. 다른 의식들이 나를 나누어서 걸머지니까 말이다. (.....) 수백만의 시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장래의 호기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는다. (.....) 나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있는' 것이다. 나는 모든 곳에 있다.(『말』)

*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해야만 하는 조건 : 따라서 구원은 상대적이고 제한적;
* 이러한 의미에서 문학을 종교적 구원의 '대용물'로 규정;
* 1964 년 『말』의 출간 : 자기 구원 = 신경증; 이웃의 구원 = 덤으로 따라오는 효과; 둘 다 포기 :

나는 슬그머니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제주이스트들의 표현을 빌자면 '덤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민중들의 공인구제사로 자처했던 것이다.(『말』)
오랜 동안 나는 펜을 검으로 여겨 왔다. 지금 나는 우리들의 무력함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떤가, 나는 책을 쓰고, 또 앞으로도 쓸 것이다. 쓸 필요가 있다. 그래도 무슨 도움이 될 터이니까. 문화란 아무 것도 구출하지 못하며 또 누구를 구원할 수도 없다. 그것은 아무 것도 정당화해 주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산물이다.(『말』)

Ⅳ. 마치면서

*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은 사실 아니다";
* 참여문학 : 강요된 담론
* 연구 과제 : 「검은 오르페」, 『지식인을 위한 변명』, 보들레르론, 말라르메론, 주네론, 플로베르론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